



## 노키아, '아이튠' 채용 할까?

노키아는 애플의 음악서비스 '아이튠(iTunes)'을 자사 멀티미디어 뮤직폰 'N91'에 채용할 것인가?

애플 컴퓨터의 아이튠 서비스를 채용할 것이라는 핀란드 일간지 보도를 노키아가 일단 부인함으로써 향후 노키아의 행보에 귀추가 모아진다.

지난달 17일 핀란드 일간지 'Taloussanomati'는 노키아측 관계자 말을 인용, N91에 아이튠 채용방침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다음날 로이터는 노키아측이 올해말 출시 예정인 뮤직폰 'N91'에 아이튠 서비스를 탑재하는 어떤 계약도 맺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키아는 아이튠 서비스가 자사 N 시리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설령 아이튠을 채용할 가능성은 있더라도 모토로라와 같이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진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편 모토로라는 이미 지난달 아이튠 채용을 공식화한 바 있다. 모토로라는 지난 7월 25일, 한 이벤트에서 아이튠을 탑재한 휴대폰을 올 4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휴대폰의 아이튠 채용은 단말기 제조업체의 음악 콘텐츠 중시 흐름과 맞물려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 2Q 전세계 휴대폰 판매 '1.9억대'

올해 2분기(4~6월) 전세계 휴대폰 판매량은 모두 1억 90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노키아가 여전히 1위를, 삼성은 모토로라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성장세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 일본의 2분기 판매대수는 1000만대로 전년동기 1060만대에 비해 다소 줄었다.

가트너는 음악 플레이어나 풀 기능의 웹 브라우저 탑재 휴대폰의 경우, 기변을 촉진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성장세를 견인한 동인엔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노키아가 31.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모토로라(17.9%), 삼성전자(12.8%), LG전자(6.5%), 소니 에릭슨(6.2%), 지멘스(4.7%) 순이었다.

노키아의 1위 수성은 버진 모바일 공급을 계기로 CDMA 휴대폰 부진을 만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키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북미에서는 3위로 올라섰다.

반면 모토로라는 북미에서 33.5%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유럽에서도 전년 5위에서 2위로 부상,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豪 최대통신기업 텔스트라, 내년 완전 민영화

호주 최대 통신사업자인 텔스트라가 2006년 완전 민영화된다.

외신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하워드 수상이 이처럼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보유중인 텔스트라 주 51.8%를 전부 매각하는 법안이 9월초 시작되는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매각액은 약 310억 호주달러(약 27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각 이익을 지방의 통신 인프라 정비 등에 활용해 도시와의 통신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서유럽 IPTV 시장규모 '09년 '25억불'

서유럽 통신 사업자들이 매출 증대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IPTV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이 지역 IPTV 서비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펴낸 '서유럽 IPTV 전망 2004~2009' Western European IPTV Forecast 2004-2009를 통해, 서유럽의 IPTV 서비스 성공이 기존 TV 서비스의 보급률, 브로드밴드 경쟁 수준 및 고품질 IPTV 서비스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콘텐츠에 대한 현사업자와 선도적인 경쟁 사업자들의 투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서유럽 IPTV 서비스 시장 규모는 6200만 달러였으며, IPTV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수는 아직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시장은 향후 5년간 불을 이뤘, 2005년 2억 6200만 달러에서 2009년 2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경 서유럽 가구수의 6%가 IPTV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DC 2009년경에는 유럽의 기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2군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신규 공급 업체들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IDC는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성을 토대로 한 고품질 콘텐츠를 통해 시장에서 이미 통용되는 비디오 서비스와 자사의 서비스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콘텐츠에는 원하는 모든 종류의 콘텐츠로의 즉각적인 접속, 타임 쉬프트(Time-Shift) TV, 네트워크 기반 비디오 레코더,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앵글의 시청자 주도 선택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부분의 가정이 유료 TV 서비스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프리미어 축구 경기 방영권은 콘텐츠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IPTV 사업자들의 성공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IDC는 전망했다.

### 中 샤오링통 네트워크 확장 착수

중국판 PHS 서비스로 불리는 샤오링통(小靈通) 투자가 올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외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샤오링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전화 사업자 차이나텔레콤(중국전신)과 차이나넷콤(중국망통)이 주요 도시에서 샤오링통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확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샤오링통 투자를 억제한 이들 사업자의 이번 네트워크 확장방침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

확장 대상은 절강성, 상해시, 복건성, 복경시, 흑룡강성, 요녕성, 내몽고 자치구 등이다.

통신설비는 UT스타콤이 공급하게 되며, 이미 UT스타콤은 이들 두개 사업자로부터 1억 6700만달러 상당의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내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3G 사업권 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유선사업자로서는 샤오링통 사업에 더욱 의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이나텔레콤 관계자 역시 샤오링통이 없었다면 1분기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힐 정도.

한편 신식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중국의 샤오링통 가입자 수는 7980만명으로 지난해말보다 1488만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월평균 신규가입 250만명꼴로 이동전화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에 이어 2위 준중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日, 11월 휴대폰 신규사업자 선정

일본 총무성이 9월30일까지 신규 이동전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이후 총무성은 자체 심사 및 전파감리심의회 자문 등을 거쳐 11월 중 신규 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서비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인 면허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총무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동전화용 신규 할당 예

정 주파수인 1.7/ 2.0/2.5GHz대 및 800MHz대 재편성을 위한 연구회 '휴대전화용 주파수의 이용 확대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한 후 1.7GHz대와 2GHz대 할당 방침안을 정한 바 있다.

현재 신규사업자로는 1.7GHz대에서 소프트뱅크와 e-액세스가, 2GHz대에서 아이피모바일과 월콤, 라이브도어가 주파수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 中·日, 손잡고 4G 세계표준 노린다

일본과 중국이 2010년 실용화 예정인 4G 휴대폰 기술개발을 제휴한다고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일본에서 담당부처 국장급 회담을 열어 연구 개발이나 세계 표준 획득을 위한 교섭을 진행, 협력체제 구축을 포함한 각서에 조인할 방침이다. 이후 국장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 양국 휴대폰 분야 업계와 대학 등을 포함하는 포럼 구성 등을 통해 제휴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국의 4G 제휴는 일본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세계 최대 휴대폰 시장인 중국을 조합, 단말기 등의 기술 사양에서 세계 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란 게 신문의 분석이다.

현재 중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일본 제조업체의 점유율은 노키아 등에 밀려 수 %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일본은 4G 경우, 개발단계에서부터 중국과 제휴를 강화,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WCDMA 스마트폰 시장 '맑음'

가트너 자료에서 판매 대수를 종류별로 보면 W-CDMA 휴대폰 시장은 2006년 1억대를 초과하고, 스마트폰 시장은 2008년 2억대를 초과한다.

W-CDMA 시장의 경우 올해 5000만대 수요에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내년에 1억대를 돌파한다는 것은 국내 업체들 대응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초기 W-CDMA 시장에서 LG전자가 선전하고 있지만 1억대 수요가 형성되는 내년에 메이저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더라도 대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삼성전자는 올 1분기부터 W-CDMA 시장에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은 업계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할 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폰 시장은 작년 2000만대 수준에서 올해 5000만대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고 2008년 2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가트너는 내다보고 있다.

## 09년 휴대폰 판매 10억대 · 휴대폰 사용자 26억명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올 세계시장 휴대폰 판매는 당초 예상됐던 7억5000만대를 상회하는 7억7900만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것. 또한 2009년이 되면 세계시장 휴대폰 판매는 사상 처음으로 10억대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 시기 휴대폰 사용자는 26억명 정도.

2004년 말 기준 세계 휴대폰 사용자는 분석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13억~15억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분기까지만 해도 2005년 세계휴대폰 시장을 7억5000만대로 예상한 가트너가 7억7900만대로 수요를 상향 조정한 것은 1분기 1억8000만대, 2분기 1억8000만대 등 상반기에만 3억6000만대 수요가 형성된데다, 하반기의 연말 특수를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년 사상 초유로 휴대폰 시장이 10억대를 초과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작년 가트너 분석에 따르면 휴대폰 시장은 2006년을 기해 성장곡선이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10억대까지 곡선이 그려진다는 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중저가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 중저가 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엔드 모델 판매에 치중했던 국내 업체들에게겐 좋지 않은 일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중가 GSM시장에서 노키아, 모토로라 등과 경쟁하기론 벅겁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장점유율 확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 수량은 다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순익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 시스코 CEO “노키아 인수 No!”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의 노키아 인수설과 관련, 이 회사 존 챔버스 CEO가 전화회견을 통해 이를 부정했다고 닷케이산업신문이 보도했다.

지난달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영국의 선데이 비즈니스 뉴스페이퍼를 인용, 시스코가 무선 인프라 업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이중 휴대폰 세계최대 업체인 노키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닷케이산업신문은 9일 존 챔버스 CEO가 “노키아 인수는 극히 생각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부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시스코는 현재 인수전략을 통한 사업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챔버스 CEO는 “인수 대상은 원칙적으로 수백명 정도의 비상장기업 또는 활동지역이나 기업문화의 친숙함 등이 전제가 된다”며 “지구 반대쪽에 있는 거대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전략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챔버스 CEO는 그러나 “이미 IBM 등 많은 대기업과 제휴중이며, 대상을 넓히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노키아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내려온 바 없다”고 밝힌 후, “이러한 소문의 진원은 노키아 단말이나 솔루션이 아닌, 네트워크 부문의 경영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키아는 핀란드의 국민기업으로, 이는 삼성전자가 모토로라에 인수되는 꼴”이라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